광주 건설사주 납치 용의자

조직폭력배 3명 구속

범행 4개월만에…주범 못잡아 수사 난항

지난해 11월 발생한 광주 N건설 사주 공모(48)씨 납치사건<본보 2006년11월22일자 7면>에 행동대원으로 가담했던 용의자 3명이 범행 4개월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일 공씨를 납치한 국제PJ파 행동대원 양모(34)·강모(28)씨 등 3명을 폭력행위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범행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국제PJ파 부두목 조모(48)씨와 범행에 가담한 서울 명동파 조직폭력배 등 모두 12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범행에 이용된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초 불구속 입건된 조씨의 처남 이모(36)씨와 조씨 행동대원 간의 연결고리 역할을 했던 4명의 조직원 등을 포함하면 이번 사건에 연루된 사람은 20명에 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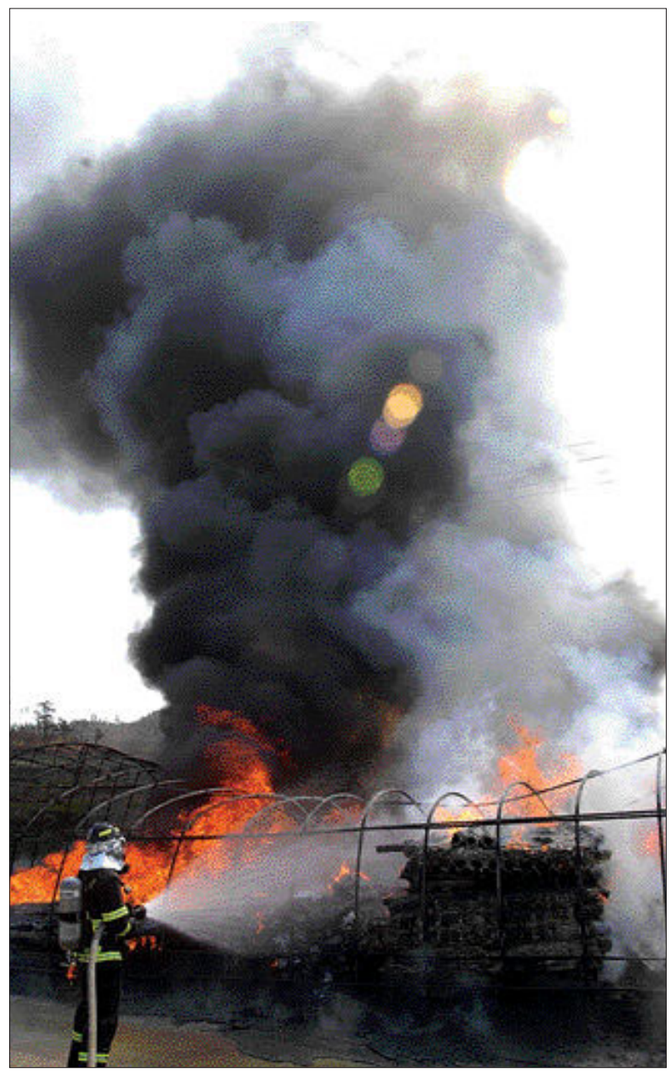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 21일 오전 9시20분께 광주시 남구 K호텔 사우나에서 전기충격기를 이용해 공씨를 납치한 뒤 5시간30여분 동안 북구 중흥동·오치동·일곡동 일대로 끌고 다니며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4~5명씩 조를 나눠 호텔 주변에서 망을 보고, 사우나 직원을 제압하는 등 역할 분담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호텔 앞에서 준비해 둔 승용차에 공씨를 태운 뒤 얼굴을 가리고 수갑을 채우고, 북구 오치동에서 승합차로 갈아 태우는 등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을 추적, 광주시내에서 이들을 검거했으며 나머지 공범들의 뒤를 쫓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휴대전화를 수시로 바꾸고, 구속된 양씨 등이 "검거되면 무조건 부인하라"는 조직 내 지침에 따라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지난해 11월 발생한 광주 N건설 사주 공모씨 납치사건의 용의자인 국제PJ파 행동대원 양모씨 등 3명이 20일 오후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해남 농자재 창고에 불 20일 오전 10시43분께 해남군 문내면 우수영의 한 농자재 창고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다. 이날 화재는 이웃 주민이 쓰레기를 소각하던 중 발생했으며, 1천800만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피해를 내고 50분 만에 진화됐다.

/해남=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여고생 집단 폭행

순천서 동급생 8명이 동영상 촬영 협박도

순천경찰은 보성군 모 고등학교 신입생 P(16·고 1)양이 동급생 8명으로부터 집단폭행 당했다고 신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P양은 지난 17일 오후 3시께 순천시 O(16·고1)양의 집에서 O양 등 동급생 8명에게 4시간 동안 집단 폭행을 당했다는 것이다.

P양은 이들이 폭행을 하면서 담뱃불을 사용하고, 폭행 장면과 치마 속까지 동영상으로 촬영한 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며 협박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병원 진단결과 P양의 팔과 무릎 등에서는 담뱃불에 화상을 입은 흔적이 7곳이나 발견됐고, 몸에는 심한 멍 자국이 남아 있었다.

P양은 현재 정신적 충격으로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O양은 "(P양이) 교복을 훼손했다"며 1만원을 요구했으나 제때 주지 않자 집단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학교 관계자는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입학한 지 10여 일밖에 지나지 않았고 방과 후 발생한 일이라 정확한 경위를 모르고 있다"고 해명했다.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

■ 건설사주 납치 동기는?

수도권서 번 돈 수억원 뜯으려한 듯

국제PJ파 부두목 조씨는 왜 N건설 사주를 납치했을까?

공씨와 조씨는 20대부터 "형님, 동생" 하는 사이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조씨는 1993년께 공씨에게 "그림을 사 달라"며 돈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후배들을 시켜 공씨를 협박했으며, 이때부터 둘 사이가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조씨는 광주 S건설 난입사건과 P호텔 나이트클럽 지분을 둘러싼 폭행혐의로 교도소에서 10년을 복역한 후 2004년 출소했었다.

경찰은 조씨가 이번에도 김포·판교·동탄 등 수도권에서 아파트 2천여 세대를 분양, 돈을 번 공씨에게 수억원을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납치 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피해자 공씨는 그러나 협박받은 내용에 대해 경찰은 물론 언론에 입을 다물고 있으며, 현재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경찰은 이 때문에 주범 조씨를 검거해야만 사건 전모가 밝혀질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조씨와 그 행동대원들이 지난해 말 자수 의사를 밝혔으나 변호사 비용과 옥바라지 비용을 부담해줄 사람이 없어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상품권 못쓰게 되자 아예 현금지급

성인 오락실 문 잠그고 비밀 영업

성인 오락실에서 통용되던 상품권이 지난달 말 지정 취소로 무용지물이 되자, 아예 현금으로 지급한 업주들이 적발됐다.

광주시 북구청과 북부경찰은 지난 19일 오후 3시께 게임기에 표시된 점수만큼의 현금을 손님에게 지급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로 광주시 북구 신안동 K오락실 업주 박모(32)씨와 용봉동 S오락실 종업원 이모(25)씨를 붙잡았다.

이들은 게임기에 5천 점이 기록됐을 때 5천원짜리 상품권 1매가 나오던 센서를 없애버리고, 그 점수를 현금으로 환산한 뒤, 손님들에게 수수료 10%를 뺀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붙잡힌 업주들은 30일의 영업 정지 처분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받는 등 행정 처분과 형사 처벌을 동시에 받게 된다.

종전 오락실은 게임기에서 나온 상품권을 인근 환전소에서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외한 후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했다. 하지만 상품권 유통이 불가능해지자 환전 과정을 생략한 것이다.

북구청 관계자는 "업주들이 정문을 잠그고 암호를 대야 출입을 허용하는 등 비밀 영업하고 있어 단속이 어렵다"고 말했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여자친구 관심 끌려고

수업 중인 학원에 중학생이 불 질러

여자친구의 관심을 끌기 위해 수십여 명의 학생들이 수업 중인 종합학원에 두 번씩이나 불을 지른 중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남부경찰은 19일 오후 8시50분께 남구 J학원에 불을 지르려던 P(14·중 3년)군을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조사 중이다.

경찰 조사 결과 P군은 이 학원에 다니는 초등학교 동창 C모(14)양이 쌀쌀맞게 대하자 관심을 끌기 위해 사무실 창틀에 화장지를 끼워넣고 불을 붙인 혐의다.

P군은 창문틀이 그을리고 타는 냄새를 맡고 주위를 살피던 학원 강사에게 발각돼 경찰에 인계됐다.

P군은 지난 9일에도 학원 외벽에 있는 배선 시설에 불을 질렀으며, 당시 학원 강사들이 조기 발견해 소화기로 진화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또 목욕탕 돌연사

지난 19일 오후 6시25분께 광주 북구 운암동 B 목욕탕 온탕에서 문모(58)씨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옮기던 중 숨졌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20대 재래식 화장실서 딸 출산

쌍나팔

○…해산일이 가까워 오던 20대 임산부가 재래식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중 딸 아이를 출산.

○…20일 보성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50분께 보성군 득량면 A(26)씨의 집 화장실에서 만삭의 A씨가 용변을 보다 갑자기 아이가 나오자 가까스로 끌어 올려 사고를 면했다고.

○…A씨는 갓난 아이와 함께 '119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긴급 후송됐는데, "하마터면 큰 일 날 뻔했지만, 건강하고 예쁜 딸을 얻게 됐다"고 안도. /보성=안구일기자 giahn@

"종합병원·보건소 이용하세요"

의사 궐기대회, 동네병원 휴진…보건소 연장 진료

"오늘 동네 병원 대부분 휴진. 종합병원이나 보건소 이용하세요."

21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리는 '의료법 개악저지 총궐기대회'에 광주·전남 등 전국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들이 집결, 집회를 벌이기로 함에 따라 진료 공백이 우려된다.

광주시의사회는 소속 의사 2천500명 가운데 동네 병의원급 1천500여명이 집회에 참석한다. 전남도의사회도 회원 1천750여 명 중 절반이 집회에 참석하며 치과의사회·한의사회·간호조무사회 등도 동참해 환자들의 불편이 클 전망이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이에 따라 보건소와 보건진료소의 진료시간을 오후 8시까지 연장키로 했다. 시·도는 또 정상진료가 예상되는 병원과 약국 등을 대상으로 진료·투약시간 연장을 권유하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